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보험업법 개정안 40% 처리

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

총 65건 개정안 발의, 26건 통과
제20대 국회比 처리비중 16%p ↑
미처리 법안 내달 자동폐기 예정
유사 법안 발의 시 모니터링 필요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 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

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회사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해외여행
KB국민카드
할인 받고 떠나요!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제휴사 해외여행상품 호텔·항공권 할인제공

KB국민카드가 해외여행 할인을 제공한다.

◆ 해외여행상품 및 호텔, 해외항공권 등 할인

KB국민카드는 합리적인 해외여행을 위해 제휴 여행사 해외여행상품 및 호텔, 해외항공권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5월 31일까지 KB Pay 여행 내 제휴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좋은여행에서 해외 패키지 결제 시 3%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호텔패스에서 해외 호텔 결제 시 8% 할인, 하나투어에서 1박당 10만원 이상 해외 호텔 결제 시 7% 할인을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해외항공권 결제 시 내일투어에서 최대 19%, 인터파크트립에서 최대 20%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와이페이모어에서 해외항공권 결제 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8%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4월 30일까지 NHN여행박사에서 일본/동남아 여행 상품 결제 시 5%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5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5000원 할인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할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7만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도서관의 날' 맞아 아름인 기부 이벤트

신한카드가 도서 기부 캠페인을 실시한다.

◆ 아름다운 도서관에 도서 기부

신한카드는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고객과 함께 '아름인(人) 도서관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액에 상관없이 캠페인에 기부한 신한카드 고객 수만큼 전문가가 추천하는 권장도서를 전국 지역아동센터 내 '아름인 도서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한카드의 기부 전용 사이트인 '아름인'에서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이 있는 4월에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아름인 도서관은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식을 전달하고 디지털 이해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분양 캘린더

전국 6개 단지서 7980가구 분양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7980가구(일반분양 509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복정동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 나퍼스티체',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어드'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건본주택은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진아래히', 대전 중구 문화동 '문화자이SK뷰'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1지구 B3블록에서 '엘리프남위례역에듀포레'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지난 2022년 진행했던 사전청약본 143가구를 제외한 367가구가 본 청약이 시작된다.

단지는 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 역세권 단지이며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을 통해 서울 강남권 진입이 용이하다. 위례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대전시 중구 문화동 일원에서 '문화자이SK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9개동, 총 1746가구로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2~84㎡ 12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에는 충청권광역철도 문화역(가칭, 1단계구간 2026년 개통목표)이 신설될 예정으로 향후 교통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김대환 기자 kdh@

보장강화 vs 재정안정... 연금개혁 민심은?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개혁 박차 시민토론 통해 추진 방향 결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내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 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는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 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



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 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

/양승진 기자 asj1231@